

## ■ 2025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연극/뮤지컬분야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5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연극/뮤지컬분야
- 회의일시
  - (1차 서류심의) 2024년 12월 6일(금) 10:00~18:00
  - (2차 인터뷰심의) 2024년 12월 20일(금) 10:00~18:00
- 회의장소 : 대학로 메이플레이스 호텔 컨퍼런스룸 1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건표, 남윤일, 우연, 정안나, 황진수

2025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연극, 뮤지컬 분야는 지원신청 29개 단체 중 결격 대상 1건으로 최종 28개 단체가 1차 서류심의 대상이었으며 총 지원신청액은 5,200백만원, 배정예산은 1,075백만원이었습니다. 올해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지원사업의 변화된 특징은 개별지원 유형과 통합지원 유형으로 선택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개별단체 지원은 축제 고유의 경쟁력과 전통성을 유지하며 축제의 경쟁력을 지속하는 성격이었다면, 통합지원은 장르 축제의 독창성과 기존 운영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2025년 통합 브랜딩으로 운영될 대한민국공연예술제에 참여하여 축제를 대중적으로 확장하는 통합형 축제의 방식입니다. 통합형의 장점은, 그동안 선보여온 축제 형식은 유지하면서도 타 장르들과 협력해 치러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획, 홍보, 관객개발과 축제의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는 데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일 축제로 전통성을 유지하며 경쟁력을 확장하려는 단체들은 개별지원 유형을 선택하였고 해당 선택 또한 존중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원방식의 특수성으로 심의위원들은 개별, 통합유형과는 무관하게 축제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와 세부계획을 통한 축제의 파급효과, 지속 가능성, 단체의 역량 등을 고려해 1차 서류 심의를 진행하여 이 중 총 15개 단체를 2차 인터뷰 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1차 서류심의 과정에서 축제로 특화되지 못하거나 사업계획이 지난해와 큰 변화의 차이가 없는 단체들도 일부 있었고, 타 축제와 차이점이 드러나지 않는 계획으로 사업의 방향성을 제안하고 있는 단체도 있었습니다.

2차 인터뷰 과정에서 중점을 두었던 것은 축제의 독창성, 지속성과 전통성, 축제사업의 계획과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도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십수 년을 지속해 오며 장르를 대표할 만한 특화 축제도 많았습니다만, 축제 성격과 유형이 모호하여 변화를 통해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축제로 성장과 발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단체들이 유지하고 있는 축제들이 선택적으로 판단할 수 없을 만큼, 땀과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규모는 한정되어 있기에 심의위원들은 대상 단체를 선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2차 인터뷰 심의가 끝난 뒤 심의위원들은 심층 토론은 심의에 객관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5인 개별 채점방식을 통해 대상 단체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평균 평점으로 선정 단체들의 윤곽이 드러났지만, 심의위원들은 예산 배정의 효율성 문제로 상당 시간 마라톤 회의를 거듭했습니다. 심층 토론에서 가장 큰 이슈는 총 사업비 대비 단체 선정 및 예산 배정이었습니다.

2차 인터뷰 대상 총 15개 단체의 지원신청액을 합산하면 총 3,078백만원으로 배정예산 1,075백만원의 약 3배나 달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전체 지원신청예산 중 약 30%만 배정할 수 있는 예산이었던 것입니다. 지원신청예산의 100%를 지원금액으로 배정할 때는 소수 단체만 선정될 수 있었으며, 단체별 최근 3개년 공연예술제 평균 지원금액을 고려해도 심의위원 공통으로 합의할 만한 단체 선정 수 유지가 힘들었습니다. 또한, 지원의 중단이 쉽지가 아닌 마침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점수에 따른 순위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소수 단체를 지원하는 방식 보다는, 적은 예산이라도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다수의 단체가 이듬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에 합의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예산을 고르게 배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심의 과정에서는 각 단체의 지원금 수혜 경험, 최근 지원 내역, 그리고 최근 3개년 평균 지원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예산 배정의 현실성과 적절성을 심사숙고했습니다.

이에 협의 과정을 거쳐 심의위원들은 각 축제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부 지원 금액 조정을 통해 단체선정을 늘리자는데 의견이 모였으며, 우수한 결과가 기대되는 축제에는 소폭의 증액도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총 11개 단체에 1,075백만원 예산을 차등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선정된 단체와 미선정된 단체 모두에게 완전히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닐 수 있으나, 본 사업이 단체와 축제의 지속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결정이었음을 널리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아쉬운 점이 있지만 아무쪼록 선정단체들은 축제의 변화 추구와 경쟁력 확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개별지원 유형, 통합지원 유형 단체 모두 축제 간 협업을 통한 상호 시너지 효과로도모하여 우수한 대한민국 공연예술축제로 발전적인 성과를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각 단체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보여주신 가능성은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선정된 단체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더욱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길 기대하며,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단체들 역시 이번 도전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더 큰 성장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원의 기회를 함께하지 못했더라도, 여러분의 예술적 비전과 노력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귀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창작의 길을 묵묵히 걸어오신 모든 분께 깊은 존경과 응원의 마음을 전하며, 예술의 지속성과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 심의를 통해 잦은 축제 지원제도의 변화, 상대적으로 타 지원분야에 비해 적은 축제 지원금 총액의 한계, 중장기 계획을 세울 수 없는 단년 지원의 한계가 축제조직의 고충 사항이라는 의견을 경청할 수 있었습니다. 심의 과정 중 제기해 주신 의견 또한 향후 제도운영과 개선 과정에 소중히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의위원 일동